

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이 '실용외교'의 핵심입니까?

요즘은 제가 회원 여러분께 “별고 없으신지요?” 인사를 드리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.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한 한-미간 고위급 협상 소식도 그렇고, 4월 25일부터 여는 임시국회에서 한-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라는 소식도 그렇습니다. 미국에서는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한-미 FTA 비준을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.

저와 중앙연합회 이사들이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농식품부 정학수 1차관과 면담을 하려 했습니다. 하지만 의경들은 “농식품부에서 5명만 들어오게 약속돼 있었다”고 막아섰고 농식품부 쪽에서는 “5명만 들어오라고 한 적 없다”고 얘기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

썩쓸한 마음을 안고 과천청사 앞 경비를 서는 의경들을 바라봅니다. 도대체 무엇을, 누구를 위해서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까? 4천 7백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겁니까, 한 줌도 안 되는 미국 육가공업체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는 겁니까? 쇠고기 수입업자들조차 “자기 식구들한테는 절대로 먹이지 않겠다”고 하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입니다. 4월 9일 총선이 끝나고 19일 한-미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그 짧은 기간에 정부는 위험천만한 수입 재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.

단지 쇠고기를 먹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여성들이 바르는 화장품 같은 데도 소의 태반이 쓰이는데 그것마저도 광우병 위험물질에 오염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350만 농민의 생존권은 제쳐두고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대사를 무턱대고 미국에 양보해 준 것이 현 정권이 그토록 주장해 온 ‘실용외교’의 실체입니까?

회원 여러분, 5월 피약별 모내기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“부지깽이도 일어나서” 위험천만한 한-미 FTA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막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. 4천 7백만 국민의 생명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우리입니다. 기름값마저 천정부지라는데, 우리의 생명줄인 농업마저 송두리째 내줘야 하겠습니까? 함께 일어나 싸웁시다. 거꾸로 가는 잘못된 정부의 농업정책을 우리 손으로 기필코 바로 잡아냅시다.

